

10 광주일보

제17441호 2006년 5월 8일 월요일



질병·상해 100세까지 보장

대한화재 '피오레 슈퍼라이프보험' 판매

대한화재는 100세까지 보장하는 종합보험인 '무배당 피오레 슈퍼라이프보험'을 판매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상품은 상해 사망에 최고 2억원, 50% 이상~80% 미만 상해에는 10년간 최고 6천만원, 80% 이상 상해에는 최고 1억 2천만원의 보험금 지급을 100세까지 보장한다.

질병은 80세까지 보장하는 질병사망 보험금은 최고 2억원, 암·뇌졸증·급성심근경색증 등 3대 질병 진단비는 최고 2천 500만원, 치매 진단비는 3천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가입 가능 연령은 만15~65세(질병 담보는 만60세까지)이며 월 보험료는 3만~18만원이다.

대한화재 관계자는 "질병과 상해 보장에 중점을 둔 상품"이라며 "100세까지 보장하는 상품은 순회보험업계 처음"이라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보해양조 오늘 '효사랑' 실천

봉사단 '사랑의 밥퍼' 등 특별 행사

보해양조(대표이사 임건우)와 젊은임새 사랑나누미봉사단이 어버이날을 맞아 '정려원과 함께하는 효사랑 실천행사'를 마련한다.

보해는 "젊은 임새 사랑 나누미가 펼치고 있는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8일 효사랑 복지문화센터에서 어버이날 특별봉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보해 직원들과 지역 대학생들로 구성된 젊은 임새 사랑나누미봉사단 외 임새주 전속모델인 정려원씨가 참여, ▲'사랑의 밥퍼' 활동 ▲주방 보조활동 ▲식당청소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 달아주기 봉사 활동을 펼치게 된다.

또 봉사단은 효사랑 복지문화센터에 '사랑의 쌀' 400kg과 매실음료 1천800캔, 어버이날 선물(스포츠 타올) 1천500개를 증정할 계획이다.

한편 보해양조가 지역사랑을 실천하고자 설립한 '젊은 임새 사랑 나누미' 봉사단은 지난 4월 8일 보해 광주사무소에서 발대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기아車 '위기'...지역경제 '휘청'

환율 하락·고유가·정회장 구속 '트리플 악재'

광주공장 4월 영업실적 3월比 13.7%P 하락

환율하락과 고유가에다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의 구속 등으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영업실적이 곤두박질치는 등 위기가 계속되면서 광주 지역 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뉴스포티지와 함께 광주공장을 견인할 쌍두마차인 뉴카렌스 생산이 계획보다 한달여 지연된다. 5월로 예정된 입금과 단체협상마저 교착 상태에 빠질 경우 기아차의 부진은 장기화될 우려가 높다.

기아차에 따르면 광주공장은 지난 4월 내수 7천95대, 수출 1만4천477대를 합쳐 2만1천872대의 영업실적을 올렸다. 이는 3월 2만5천342대로 13.7% 줄어든 수치이며, 전년동기 2만7천716대에 비해서는 21.1% 감소했다.

올 1~4월 누계는 8만8천68대로, 지난해 동기 10만5천221대로 비해 무려 16.4%나 줄었다. 내수가 31.1%(1만3천763대) 감소했고, 수출차량도 3

천390대나 축소된 탓이다.

1~4월 차종별 수출실적은 뉴스포티지가 8천576→9천929→1만2천203→1만966대 등으로 3월 정점에서 뒷걸음질친 데 이어 프린티어도 3천284→4천204→4천506→3천211대로 부진을 면치못했다.

이로 인해 기준환율이 975.6원이었던 을 상반기에도 300억원의 환차손이 발생했으며, 4월까지 400억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환율이 10원 하락하면서 수출차량 1대당 환차손은 14만3천원씩 불어나 100원 하락할 경우 연간 3천500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할 전망이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4일 현재 두바이유가 사상 최고치인 68달러를 기록, 광주공장을 옥죄고 있다. 광주공장 관계자는 "유가가 오르면 원자재 가격이 상승, 자동차 제조비용이 증가한다"면서 "특히 자동차 업계에서는 유가가 1% 오르면 소비

자의 0.4~1.0%가 신차 구매를 포기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1~4월 차종별 내수실적은 카렌스(구) 599→502→767→371대, 뉴스포티지 3천231→3천113→3천100→3천71대, 봉고트럭 2천649→4천24→4천564→4천771대 등으로 중대형버스를 제외하고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20여개에 달하는 협력업체들의 피해도 만만치 않다. 1·2차 협력업체 115개사가 뉴스포티지와 뉴카렌스 생산에 대비, 최근 2~3년 동안 2천억 원이 넘는 투자와 800여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한 상태여서 부품 납품차질에 따른 손실구조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광주공장 관계자는 "당분간 판매하락이 계속되면서 을 예상매출 6조3천억원 달성을 버겁다"면서 "을 하반기에 뉴카렌스 수출이 시작되면 분위기 반전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광주시 관계자는 "기아차의 위기는 협력업체 부도, 소비심리 경색 등으로 이어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기아차 사주기 ▲물자아껴쓰기 운동 등 다양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기아자동차 광주공장(공장장 조남일)이 5일 어린이날을 맞아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국악 뮤지컬 '흥부랑 놀부랑'에 기아기족 3천여명을 초청,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아시아나 항공 '특화 서비스'

어린이 승객 전용카운터 운영

아시아나항공(대표 강주안)은 지난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 승객을 대상으로 국내선 특화서비스를 실시했다.

김포공항에서는 어린이 승객을 대상으로 매직쇼, 솜사탕,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 폴라로이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항공권은 5일 어린이날 김포·제주노선을 시작으로 9월부터는 국내선 전 노선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아시아나는 국내선 여행에 서비스와 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서비스데인먼트' 개념을 적용, 짧은 국내선 여행에서도 고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 서비스는 특화교육을 이수한 승무원들이 국내선을 이용하는 가족단위 고객을 대상으로 기내에서 색종이 아트, 풍선아트, 폴라로이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항공권은 5일 어린이날 김포·제주노선을 시작으로 9월부터는 국내선 전 노선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금융민원 Q&A

카드 할부결제

Q: 카드결제 했는데 부도 났다면?

A: 항변권 행사 잔여대금 거부 가능

Q: 자동차종합관리서비스를 제

공하는 회사의 회원에 가입하면서 회비 50만원을 신용카드를 이용해 10개월 할부로 결제했으나 최근 이

업체의 부도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5개월분 할부금을 납부했는데 앞으로 남은기간은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될까.

A: 소비자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 및 할부거래법에 규정된 매수인의 항변권을 행사해 잔여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회사는 회원에 대해 할부금의 잔액을 청구하지 못한다.

소비자 항변권은 소비자에게 응역제공이 중단되거나 할부로 구입한 물품과 관련해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신용카드회사를 상대로 잔여할부금의 납부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이 항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매도인

과 작성한 물품 및 응역제공계약서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류가 필요하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계약서를 받지 않았거나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소비자가 제시하지 못하면 신용카드회사는 항변권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납입금액이 비교적 큰 물품이나 응역을 제공받기로 계약을 한 후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했으나 매도인(가맹점)이 부도나 폐업으로 잡적하는 사례가 가끔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소비자는 즉시 계약서 등 관계증빙서류를 갖춰 신용카드회사에 가맹점의 할부거래계약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미도래 할부금의 청구를 중지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잘 보관해 두어야 한다.

〈금융감독원 광주지국=국번없이 1332〉

광주·전남 상장사 작년 연구개발비 693억

매출액 대비 1.42%

전년비 0.23%P 상승

광주·전남지역 상장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1.42%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증권선물거래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12월 결산 상장법인 21개사를 대상으로 연구개발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지역기업들은 총 4조8천695억원의 매출을 올려 이 가운데 693억원을 연구개발비로 지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1.42%를 기록했다.

이는 2004년 연구개발비보다 18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도 1년 전 1.19%보다 0.23%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지역 상장기업들의 업체당 평균 연구개발비는 39억원에 달했지만 전체의 74%인 512억원을 지출한 금호타이어를 제외하면 타 업체들의

연구개발비는 미미한 수준이다.

연구개발비 비율이 가장 높은 회사는 파루(12.05%)였으며 이어 쉘린(9.86%), 금호타이어(2.89%) 순이었다.

하지만 연구개발비가 없는 업체도 5개사에 달했으며 2년 연속 연구개발비 지출이 없는 회사는 해원에스티, 서산, 성원파이프, 와이엔텍 등 4개사였다.

증권선물거래소 김훈희 광주사무소

장은 "전국 상장법인들의 평균 연구개발비 비율은 2%대 초반이다"며 "2%미만이거나 2년 연속 연구개발비가 없는 업체는 시장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지속적인 연구개발비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박진현관세청 차장 오늘 来光

세관서 미래혁신전략 설명회

박진현 관세청 차장은 8일 광주본부 세관과 방문, 관세청의 미래혁신전략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광주세관 직원들과 업무토론회를 마련한다.

이날 박 차장은 지난 3월 96대 이행과 제로 선정된 '세관신진화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 유비쿼터스 세관실현과 글로벌 수준의 통상비즈니스 환경을 창출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또 직원들과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제대로 된 고품질의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문제인식이 필요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장으로 문제해결형 학습동아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방침이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여보! 아침마다 꾸냥한은 산책하나마 찬 즐거움
온리동 오네드빌 친여사대 분양중
57 59 48 랑방 225-0070

들어오세요!
마지막 분양 - 34동방
지금 광주는 분양가로 가는 중 그러나
2년 전 분양가로 내 집 마련하세요!!
225-0070